

『죽음의 수용소에서』 를 읽고

정 제 천

광주가톨릭대, 신학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옮김. 서울: 청아출판사, 2005.

인간이 극한상황에 처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인간은 환경의 지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인간은 진정 자유로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대담론은 그에 합당한 거대한 실험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모른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는 한 정신과 의사에게 인간 심리의 거대한 실험실이였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원제목: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는 인간 영혼의 고결함을 인류에게 알리는 희망의 승전보이다. 저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 책은 나치 정권을 고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 1905-1997)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과 죽음을 수십 번 넘나드는 극한경험을 통해서 인간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나치 독일군의 이태리 침공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인간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인간이 지닌 관찰의 능력으로 똑같은 엄청난 고통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은 상황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화시키며 바라볼 줄 안다. 인간에게는 증거자(witness)의 능력이 있다. 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저자의 관찰과 증거 능력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수용소의 삶을 정지된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감옥을 나가면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달랐다. 감옥 안에서 삶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나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나중에 대학 강단에 다시 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낱알이 증언하리라는 결의를 하면서 최대한 명료하게 관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면 수감자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제1단계는 수감 직후의 충격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라는 집행유예 망상의 기간을 지나서 진짜 충격을 받고 나면 정신이 퍼뜩 들고 실제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 저자의 경우에는 갖고 있던 원고 봉치를 빼앗기면서 아우슈비츠에 왔다는 충격을 실감한다. 이후에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리 조각으로라도 날마다 면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2단계 적응기로 넘어간다.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이어서 혐오감이 찾아오고 마침내 무감각의 상태에 떨어진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며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외적 상황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심오한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있어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계속 이어가는 열성은 신비롭다.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를 지녀 자신의 내면세계

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아를 잘 지켜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갈수록 피폐해가는 것이 현실이니 인간의 꿈꾸는 능력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이즈음에 저자는 진리 하나를 깊이 깨우친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죽음의 언저리에서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이다.

인간은 적극적으로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즐거움을 얻어 충족감을 누린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이 매마른 삶에서도 자기 존재의 태도를 선택하면서 드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운명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용기 있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자기 보존에 급급한 동물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시련이 주는 도덕적 가치를 선물로 여길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다. 에피소드 하나. 저자는 며칠 안에 죽을 것임을 아는 한 젊은 여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녀가 명랑하게 말하였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나는 제멋대로였고,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저는 저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 나무가 대답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요, 나무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사실 “내가 여기 있단다”는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을 일컫는 이름(“야훼”: 탈출 3,14)이기도 하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정신력을 상실하여 퇴화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로고테라피(Logotherapy) 이론의 근거가 되는 체험이다. 어떤 수감자는 꿈에서 3월 30일에 수용소가 해방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대단히 분명하였기에 그렇게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 날짜가 다가와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29일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올랐다. 30일에는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31일에 발진티푸스로 죽었다. 또 다른 예로, 수용소 주치의는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다. 또 저자는 자살 미수 사건에 접하였는데, 그들은 삶에서 기대할 것이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인생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인생이 각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독자성과 유일성은 창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제3단계는 석방과 더불어 온다. 석방되어도 금방 현실을 의식할 수 없어서 자유를 실감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문득 자기가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저는 제 비좁은 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 책은 한 편의 아름다운 시다.

이러한 수용소의 체험과 거기에서 얻은 살아있는 믿음을 토대로 하여 그는 로고테라피를 창시하였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었다. 로고스(말씀, 의미)와 테라피(치료법)의 합성어인 이 말은 ‘의미 요법’이라고 번역된다. 인간은 의미로 산다는 것이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이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의 하나다. 의미요법은 실존적 공허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꼭 필요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해준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동물적 본능을 잃었으며 자기 행동을 지탱해주던 전통은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다. 그 결과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삶의 의미 없음, 즉 실존적 공허감이 나온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과 공격성, 중독증의 원인의 저변에 이런 실존적 공허가 깔려 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에 바탕을 두고 우리 각자가 상실한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도 대신 대답해줄 수 없는 질문이다. 로고테라피에는 행동강령이 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는 것이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이 질문에 스스로 응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에 있다.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은 정신질환 환자를 진단할 때 과거의 욕구불만이나 상처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요법은 의미상실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이전에는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되지 못하는가?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환자와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의미요법은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를 신명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읽어야 할 책이다.